

“흥학관,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지휘본부였다”

●광주 동구·흥학관기역시민모임, 광주시의회서 토론회

전남청년연맹 등 긴급회의 후 학생들간 싸움 ‘거리시위’로 전환 첫 맹휴학부모총회·성진회 회원선발 등 연관...‘광주정신’ 상징

오는 11월3일 학생독립운동 95주년을 앞둔 가운데 일제강점기 광주 청년들의 소양 공간인 ‘흥학관’이 1929년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지휘본부이자 전국 확산의 거점이었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흥학관은 특히 동학농민군의 집강소부터 5·18민주화운동까지 이어지는 대동문화의 맥을 전승하고 일제강점기 광주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인 만큼 조속히 기억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흥학관기역시민모임과 광주 동구는 5일 광주시의회 회의실에서 시민단체, 지자체, 역사단체 회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 사적 흥학관 기억공간 조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도역사연구원이 주관하고,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후원했다.

토론회에서 노성태 시민모임 대표는 ‘흥학관과 광주학생독립운동’이라는 주

제 발표를 통해 “1929년 11월3일 광주교보생과 일본 학생들이 동문다리 등지에서 대치하던 급박한 상황에서 전남청년연맹 집행위원장 장석천·나승규·국재진 등이 흥학관에서 긴급회의를 개최, 투쟁 방향의 대전환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표는 “흥학관의 긴급 집회는 독서회 중앙부 책임비서였던 장재성에게 전달됐고, 독서회 회원들을 주축으로 오후부터 거리시위로 전환됐다”며 “오전의 학생들 간 패싸움이 일제를 타깃으로 한 저항의 거리시위로 바뀌면서 거대한 광주학생독립운동이 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흥학관은 또 광주 최초의 동맹휴업투쟁(맹휴)이 벌어졌던 1924년 6월, 이른바 야구 시합으로 발발한 맹휴 때에도 학부모들의 긴급회의와 전남학부형태회가 열려 학생들의 맹휴투쟁 지원 공간으로 역할을 톡톡히 했다.



5일 광주 사적(史跡) ‘흥학관’ 기억공간 조성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모임 회원들과 주제발표자들이 흥학관의 조속한 기념공간 마련을 결의하고 있다. (흥학관기역시민모임 제공)

노 대표는 “1926년 11월 광주지역 최초의 학생 비밀결사조직인 성진회 결성도 ‘흥학관 출입 학생 중에서만 회원을 선발하라’는 문건도 있었다”며 핵심 역할을 수행한 이가 흥학관에서 기속하며 흥학관 내에 설치된 청년학원 고등과 출신의 ‘왕재일’이라고 확인했다.

신주백 전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장은 ‘흥학관과 1920-30년대 청년운동’ 주제발표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흥학관에

터를 잡은 광주청년동맹이나 광주소년동맹 및 흥학관에서 활동했던 전남청년연맹 소속 간부들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흥학관이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전국 확산 본부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흥학관의 기념공간 조성 방안으로 지자체나 민간단체가 직영 또는 위수탁하는 방안과 함께 민간이나 개인이 역사 공간을 무상임대·무상양여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대구 이육사문학관의 경우 민간 기업이 기부체납하고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위수탁하고 있으며, 위안부역사관은 건립 정에서 민간이 범시민운동으로 주도하고 지자체가 동참, 지원한 바 있다. 명진 광주시의회 교문위원장은 토론회 축사를 통해 “흥학관은 광주학생독립운동과 광주청년운동의 산실로써 역사적 상징성이 매우 큰 만큼 지역사회가 함께 기억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흥학관은 1921년 광산동 100번지 일대에 광주 유지인 최명구(1860-1924)가 회갑 잔치를 기념해 만원을 기부, 청년들의 수양 공간으로 건립됐다. 현재 광주 동구 구시청 일대로 해방 이후 광주시청의 부속건물 및 시의회 건물로 활용되다 1960년 후반 시청이 계림동으로 이전되면서 건물 자체가 헐렸고 현재는 토지가 분할돼 개인 소유 여러 건물들이 들어섰다. /안재영 기자

‘심정지’ 여대생 100m 앞 응급실 두고 타 병원행

조선대병원 환자 포화에 전남대병원으로 이송 ‘의식불명’

동아리 뒤풀이 후 쓰러진 여대생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약 100m 앞에 위치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두고 다른 곳으로 이송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5일 광주 동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2분께 조선대학교 한 단과대학 앞 벤치에 A(20·여)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 당국은 우선 A씨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하며 정확한 상태 진단 등을 위해 조선대병원에 연락했다. 그러나 조선대병원은 환자 포화 등을 이유로 처치 및 응급실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소방 당국은 A씨를 조선대병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전남대병원으로 이송했다. 전남대병원 이송 전

소방 당국은 한 차례 더 조선대병원에 연락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전남대병원에서 호흡을 회복했으나 의식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선대학교 학생으로 전남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농촌 봉사활동을 간 후 뒷풀이에 참석, 상당 시간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사 람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

하고 있다. 현재까지 A씨에게서 이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6개월이 넘어가면서 응급실 의료진의 피로 누적과 과부하에 따른 진료 차질을 우려해 전날부터 응급실 근무에 타 과 전문의를 투입했다.

A씨가 수용을 거부 당한 당시 응급실에는 응급의학과가 아닌 타 과 전문의 2명이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재영 기자

조선대, 법인-비대위 갈등 심화

“이사장 퇴진하라” 천막농성·서명운동

조선대학교 법인과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학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범조선인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5일 본관 중앙현관 앞에서 김이수 이사장 퇴진 천막농성과 구성원 대상 퇴진 서명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비대위는 “최근 총장의 직원 인사안을 이사장이 반력시킨 것은 심각한 학사 개입”이라며 “2025년 글로벌대학30 등 대학의 중요한 업무를 준비하는 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법인의 과도한 학사 개입 중단과 대학 자율성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인의 의약품도매업자법인 파트너 선정 과정의 불공정성에 따른 배임 의혹, 비상근직의 일근수당을 편법적으로 수취한 횡령 혐의 등을 주장하며 교육부 감사청구와 국정감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조선대법인은비대위측의요구

사항이었던 ‘공익형이사제’ 도입을 전격수용해 법인이사 9명 가운데 1명을 광주시 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임명할 계획이었으나 광주시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선대법인은오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공익형이사제 도입 재추진 등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다이어 기자

‘농지법 위반’ 前 구의원 항소 기각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농지를 공동 명의로 사들이고 가짜 영농 계획서를 제출한 전직 기초의원 등 6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항소부·부장판사 김성흠)는 5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받은 전직 광주 북구의원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 판결을 했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2천만원을 선고 받은 5명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안재영 기자

광주서 음주·마약운전자 잇따라 ‘덜미’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서차를 문 운전자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20대)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12분께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은 물론 혐의를 받는다. 신호 대기 중 잠든 A씨는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걸 수상히 여긴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검거 과정에서 A씨는 경찰이 깨우자 놀라 자신의 차량 앞에 있던 경찰차의 후미를 들이받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전날 오전 4시35분께 남구 백운동 한 도로에선 B(40대)씨가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하다 인근의 중앙분리대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목격 신고에 의해 덜미가 잡힌 B씨는 경찰의 간섭 시약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조사 결과 B씨는 운전하기 전 자택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나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의 차량에선 성인 7명이 동시에 복용할 수 있는 분량의 펜타닐 등 마약 3종이 발견됐다.

남부경찰은 B씨를 상대로 마약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주석화 기자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퀄리티 품질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K-06 중상급자용	 피닉스 K-03 초보 중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퍼펙션 PERFECTION 프리미엄 상급자용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